



[산업] 현대車, 이네오스와 글로벌 수소생태계 조기구현 '한뎛' 06



Life

[라이프] GS리테일 농협하나로유통과 상품 공동 개발 L1



# 수출입은행의 '희망 씨앗' 사회 곳곳 행복의 싹 틔운다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20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함께 나누는 사랑, 더불어사는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수은은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 공헌활동에 산정·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30대 계열 대기업에 금융을 지원 해서 받은 이자수의 일부와 직원들의 인건비 절감분을 재원으로 하는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활동은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다문화·탈북가정 등 신구성원의 사회적응 지원▲글로벌 사회공헌 등이다. 특히 수은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수혜자와 수혜기관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 취약계층과 동행

수은은 우선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우리사회 기준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희망씨앗전파와 희망일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취업훈련비용과 일터 운영비용을 지원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016년부터 희망씨앗전파와 희망일터 지원사업에 후원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 총10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수은은 희망씨앗 전파사업에 2억원, 희망일터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희망씨앗 전파사업으로는 결혼이주여성 고용하거나 공정무역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12개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희망일터 지원사업으로는 결혼이주 여성과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 신구성원 20명의 일자리 급여와 인력 훈련비를 지원했다.

수은은 프로보노 봉사단을 운영해 재능 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 프로보노는 시민 또는 기업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기부하는 활동이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신용이나 담보가 취약해 일반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수은은 영세 사회적 기업에 긴급자금대출과 상해 공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개별 기업에 맞는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배식봉사

자립기반 마련 돕는 사회공헌활동 취약계층 위한 고용·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자금 지원·경영 컨설팅

다문화 어린이 위한 축구교실 열고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자금 지원도

개도국과 자매결연, 생활시설 개선 라오스·가나 등에 국산 방역물품 전달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수은은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채움터'를 방문해 노숙인 등에게 밥과 반찬 등을 배식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다문화·탈북민 가족 지원

수은은 고유업무 특성을 살려 신 구성원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다문화·탈북민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고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은은 올해 전국 14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원 상당의 차량 14대를 기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증한 차량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총 90대다.

다문화 어린이를 위해 축구교실도 지원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또래들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소외 등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탈북민을 위해서는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탈북민 대안학교는 북 청소년과 탈북민 2세대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초 학습부터 정서지원, 취업·진학지도 등 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수은은 주로 현장학습과 방과후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 실시비용과 급식비 등 학교운영자금을 지원했다.

수은 관계자는 "다른 환경에서 지내온 다문화 탈북민들이 국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다문화 탈북민 가정이 보다 쉽게 정착



1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따스한채움터를 방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수출입은행 희망씨앗 봉사단이 탈북민 어린이 경제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 수출입은행 희망씨앗봉사단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광야홀리스센터를 방문해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4 희망씨앗 대학생봉사단 캄보디아에서 글로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출입은행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DCF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

이밖에도 수은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은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저소득·빈곤국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건·의료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북벵 마을과 공공기관 최초로 '개도국 1사 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물·화장실·보건실 설치 등 생활시설 개선은 물론 마을 내 중학교 건립 지원에 나선다.

최근 수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에 한국산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국가는 라오스, 캄보디아, 가나,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로 방역복과 검사장비 등을 지원했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해 긴급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들 국가 모두 EDCF 중점협력국으로 K방역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